

제2절 거일2리(巨逸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봉화대(烽火臺)에서 내려온 산이 남북으로 뻗어있으며, 북쪽은 거일1리와 경계를 하고, 서쪽은 마을 뒷산으로 그 아래에 있는 동향(東向)의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2017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계알’로 부르며 울진의 대표적 특산물인 ‘울진대게’ 원조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울진대게 원조마을’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울진 지방의 여성 대동놀이인 ‘달님세’ 놀이가 전해온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거일리가 1리·2리·3리로 분구되어 거일2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거일2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149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온양 방씨(溫陽方氏), 강릉 최씨(江陵崔氏)가 대종을 이루며 밀양 박씨(密陽朴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음력 정월 초에 택일(擇日)하여 정초고사(正初告祀)를 지내고 음력 9월 9일에도 동제(洞祭)를 지낸다. 또 신미고사(新米告祀)라 하여 신곡(新穀)이 나올 때 택일(擇日)하여 햇곡물로 제사를 지낸다.

2) 별신굿(豐漁祭)

영신(迎神)굿이라 하여 3년마다 마을 앞 백사장에 굿청을 차리고 3~5일간 굿판을 펼쳤으나, 1970년대 이후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후부터 중단했다.

5. 전설

신라 초엽(初葉)에 온양 방씨(溫陽方氏)가 처음 이 마을을 개척하고, 이어 이씨(李氏)가 살았다 하여 ‘방씨(方氏) 골목에 이씨(李氏) 터전’이라는 향언이 전한다. 거일(巨逸)이라 지명은 마을의 모양(地形)이 알을 품고 있는 게(蟹) 형국이어서 ‘게알’ 또는 ‘기일’로 부르며, 한자(漢字)로 거일(巨逸)로 표기한다.

제3절 삼달1리(三達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에는 청룡산(靑龍山)이 있고 멀리 청학산(靑鶴山)[일명 체학산(滯鶴山)]이 바라보이며, 그 사이로 마을 앞들과 평해안들 옆을 흐르는 남대천이 있다. 평해와 백암온천을 통하는 88번 지방도가 마을 앞을 지나고 있으며, 북쪽은 삼성산(三聖山) 지맥이 뻗어있고, 서쪽은 신래봉(辛來峰; 일명 태봉(胎峯))과 삼성봉(三聖峰; 일명 금곡산(金谷山))이 마을 뒷산으로 남향(南向)의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1988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고려 충렬왕 3년에는 평해군 상리면(上里面) 달면리(達面里)로 되었다가, 상리면(上里面) 하달리(下達里)로 되었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군(郡)의 통폐합으로 울진군 평해면 삼달리(三達里)로 되었다. 1944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달리가 1리·2리로 분구(分區)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삼달1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70세대가 거주하며 안동 김씨(安東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